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임시총회

능동장학회 하루빨리 대종회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며 서명부에 사인



변경없이 울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제33회 개최지는 안동이며 그 다음 제34회 개최지는 32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날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임시총회에서는 전국 안동권씨 청장년회원들을 대표해 안동권씨 대종회 정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능동장학회를 하루빨리 안동권씨 대종회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부에

사인했다.

회의를 마치고 회원들은 단체로 기념촬영을 한 후 대종회 권해옥 회장이 찬조한 기념타올과 부산 청장년회에서 준비한 선물 안동 간고등어 그리고 서울청장년회에서 준비한 안동권씨 빼자를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권영희 안동권씨 전국청장년 협의회 사무국장

권혁휘 족친 대한민국 향토문화미술대전에서 서예 대상 수상

서예 부문에서 최우수 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추사(秋思)

/ 백거이(白居易)

夕照紅於燒 硝硝紅色

석양은 타오르는 불보다 더붉고

晴空碧勝藍 청공벽승남

맑게 간 하늘은 쪽빛보다 푸르네.

獸形雲不一 수형운부일

동물 모양 구름은 하나 같지 않고

弓勢月初三 궁세월초삼

당간 활처럼 굽은 달 초삼일이네.

雁思來天北 안사래천북

기리기는 하늘 북쪽 생각하게 하고

砧愁滿水南 침수만수남

다듬이질 소리가 시름에 젖어 강남을 뒤덮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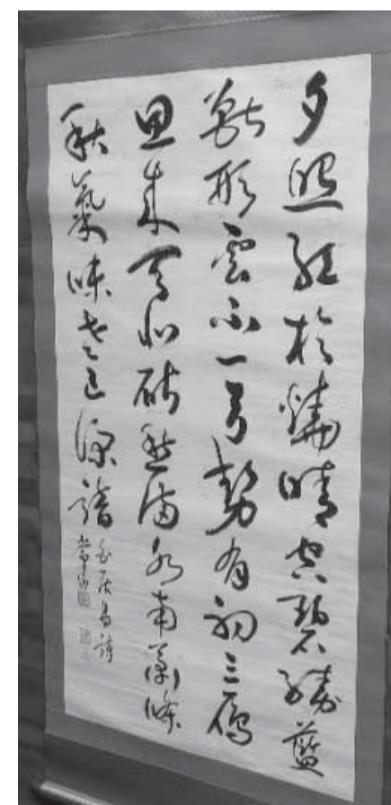
蕭條秋氣味 소조추가미

쓸쓸하고 쓸쓸해라이 가을 기분

未老已深諳 미로이심암

늙기도 전에 이미 깊이 알아 버렸네.

편집국장 권행완



노계 권삼달 ‘족적(足跡)’ 발간

작품 중에는 춘풍추상(春風秋霜): 남에게는 봄바람 같이 온화하게 하고, 나에게는 가을서리 같이 매섭고 혹독하게 한다는 등 다수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노계(魯溪)는 택호(宅號)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소 건, 기타 토의는 명첩(名帖)발행 및 경품문제 등이다. 해마다 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는 안동시청 대강당에서 족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그러나 2021년 내년에는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으로 언제 끝날지 몰라모든 행사의 인원 제한으로 안동시청에서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년인사회는 설과 정월대보름이 지난 2월 27일 토요일(음력 1월 16일) 인원 제한을 준수하여 안동종친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기타 토의에서 안동종친회는 해마다 명첩을 발행하고 있지만 내년에 신년인사회를 대체적으로 개최하지 않아도 24개 읍·면·동의 임원 및 회원 명단과 광고 게재를 하여 명첩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해마다 신년인사회 때 받던 참가비 1만원은 받지 않기로 했다.

끝으로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은 “시조 추향제는 오는 11월 30일 능골에서 봉행할 계획이며 전날 개최하면 대당회의는 취소하고 당일 오전 10시까지 시도(時到), 오전 11시에 분정(分定)을 한 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의 추향제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원회의가 끝나자 고문 등 20여명은 종친회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양반밥상’식당에서 간고등어를 결들여 점심을 먹었으며 나머지 임원들은 주최 측이 지급한 점심값 1만원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종친회 주최 ‘종친회 임원회의’ 개최

망배, 상을례, 회장인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오늘 모인 임원들 자체가 불안하지만 코로나와 싸워 반드시 이겨야한다”고 말하고 “오늘 점심도 참석자 전원과 함께 하지 못하여 안타깝다”며 “식사비로 1만원씩 지급하니 삼삼오오 모여 점심식사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 다룰 제1호 의안(議案)은 2021년(辛丑年) 안동권씨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 개최 건, 제2호 의안은 신년인사회 참석인원 및 장

백록서원 추향제 봉행

지난달 1일 11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3길 38-20에 소재한 백록서원(白鹿書院)에서 남강공(南岡公, 휘 편상, 21세)을 주모하는 추향제가 남강공 종친회의 권동옥 회장을 비롯한 많은 후손과 청주 유림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초현관 박화순(朴化淳), 아현관 권동옥(權東玉), 종현관 권영목(權寧睦), 죽권관 권광택(權光澤)으로 각각 분정했다.

백록서원은 현재 남강공의 다섯째 송정공(忠貞公, 휘 편恢)의 둘째 도사공(都事公 휘 편필중必中) 문중의 권영식(權寧溪) 회장과 후손들이 청주 유림과 함께 남강의 높은 덕을 기리기 위해 백록서원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백록서원은 1710년(숙종 36)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남강공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해 위폐를 모셨다.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해 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됐다. 광복 후 유림과 후손들이 다시 복원했고 1965년에 보수했다. 2015년 4월 17일 청



주식 향토유적 제96호로 지정됐다.

권규택 이모트랜스코리아(주) 대표이사

故권대희 족친 의료사망사고 기소명령

故 권대희군 사건은 故 권대희군이 경희대 학생(당시 25세)으로 복학 후 아르바이트 등으로 품삯으로 모은 돈으로 취업을 위해 2016년 9월 8일 안면 윤과 성형수술 후 처치 과실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종보에 보도는 하지 않았으나 본 기자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어머니 이나금 여사에게 심심한 위로와 공동대응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소명령이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 고소해 검찰이 수사한 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불기소결정’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선고될 경우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조사해 달라는 심판 신청으로 그 확률은 0.3%에 불과하다.

고소인의 주장은 ‘강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51)가 수술 후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있음에도 간호조무사가 보도록 방치했고 이 조무사 또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서 60%의 과다 출혈과 800하의 혈압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위나 유명한 사건이라 이미 ‘권대희 법’이라는 것도 주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관계법은 환자 위주로 기보다는 전문적인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전문직 의사도 결국 과실을 범한 의사의 편에 있다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의료사고심판 기관이라는 것도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진 바 있으나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면피용 과정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향신문 제공)

거기다가 보험회사와 법률 전문가들간의 커넥션 등 힘없는 서민은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건에 있어서도 마침 옆 병원의 CCTV에 녹화된 장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고 이 녹화 내용을 모친 이나금 여사는 수백 번 보았다고 하니 가슴이 서늘하다. 그걸 보면 서수 번 저미었을 마음은 어찌 가능이나 하겠는가?

우리 권문에서도 훌륭한 인재를 잃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주후 재정신령으로 인한 재수사가 정당하고 바르게 돼서 그 억울함의 만분의 일이라도 풀었으면 하는 바램을 100만 족친의 뜻을 모아 전해드리고자 한다.

아울러 고 권대희군의 모친 이나금 여사와 부친인 권성한 선생의 지난 4년간의 피탈리는 고통과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다시 한번 삼가 고권대희군의 명복을 빈다.

글 권오칠 기자

한·일 민간교류 차원 오오카와 마리코 등 일본인 3명 대종회 방문



일본인 오오카와 마리코씨는 1996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20여 년이 넘게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다.

오오카와 마리코씨가 일본인 친구 다무라 준코씨와 이개가미 노리코씨 그리고 권수웅 대종회 부회장과 함께 대종회를 방문했다.

그녀는 2002년부터 권율장군의 행주대첩기념제에 참석한 이후 20여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왜 참석하느냐고 묻자 일본인 저지른 역사적인 죄값에 대해 사과하고 그때 희생당한 한국인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일제강점기는 남북이 분단되는 원초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작고 미미하지만 한국에 용서와 화해를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세계평화기념연합 한학자 선생의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라는 책을 가지고 찾아왔다. 권해옥 회장은 20여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주대첩기념제에 참석했다고 하니 그 정성이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귀한 인연이 이어졌으면한다고 말했다. 권영익 수석부회장은 한·일간 정치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간의 교류는 물고를 트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학가족으로 인해 과거의 전통 한국의 가정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정연합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니 이 부분은 매우 의미있고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오카와 마리코씨는 한국의 명문가 안동권씨를 사위로 맞아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권행완